

‘네가 어디 있느냐’

## 네가 어디 있느냐

창3, 9, 10절, <sup>9</sup>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sup>10</sup>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Verses 9, 10, And Jehovah God cried unto the man [homo], and said unto him, Where art thou? And he said, I heard thy voice in the garden, an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and I hid myself.*

“혹시 중간에 시장하시면 이 달걀들을 삶아 드세요.”

난로가에 앉아 생각에 깊이 잠겨 있는 아이작 뉴턴(1643-1727, 만유인력 발견)에게 하녀가 잠시 외출하면서 당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녀가 일을 다 본 후 귀가, 돌아와 보니 난로 위 끓는 물속에서 익어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뉴턴의 포켓 회중시계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하녀는 달걀들을 마침 놓

여 있던 뉴턴의 회중시계 옆에 두고 갔었는데 생각에 깊이 잠겨 있던 뉴턴이 무심결에 달걀 대신 회중시계를 물속에 넣고는 깜빡,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도 전에 한번은 강의 중 마우스를 움직이는데 아무리 움직여도 화면 위 포인터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PC가 먹통이 된 줄 알고 급당황, 마우스를 움직이고자 탁탁 쳤는데 소리가 이상, 그래서 보니까, 글썄, 마우스가 아니라 굴이었던 겁니다. 수강생들이 강사님 드시라 PC 옆에 놓아둔 굴을 그만 마우스인 줄 알고 드래그했던 것이죠 ^^

이 이야기는 사람이 뭔가에 깊이 잠긴다는 게 뭔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케이스들일 경우는 괜찮은데, 그런데 만일 사람이 악과 거짓에 깊이 잠겨 죄를 짓느라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저한테도 뭐에 한 번 꽂히면 주변의 많은 조언이며 만류 등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 정주행, 결국은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던 참 후

‘네가 어디 있느냐’

회되는 순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법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과 같이 그 유명한 선악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주님이 아담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지요. 주님은 다 아시면서 그러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혹시라도 그가 귀 기울이고 정신을 차릴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죄를 고백할까 해서지요.

오늘 본문의 ‘부르시며’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샤우트’(shout), 즉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뉘앙스가 가미된 그런 ‘콜’(call)입니다. 그냥 불러도 될 걸 왜 외치시듯 불러야만 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담은 뭔가에 깊이 잠겨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아담, 정신 차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담은 지금 뭔가에 깊이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아담은 전에도 한번 이렇게 뭔가에 깊이 잠겨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갈빗대로 주님이 여자를 만드시던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2:21)

이때도 사실 아담은 주님보다 자신에게, 주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 자아 사랑에 더 깊이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은 아담의 자아를 새롭게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계시는 장면을 저렇게 묘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좋은 신(神), 좋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뒤치다꺼리가 필요한 일은 피조물인 우리가 저지르는데도 모든 책임을 주님이 지시며, 그래서 표현도 마치 주님이 친히 하신 것처럼 능동형으로 다 표현하십니다. 누구처럼 쪼잔하게 ‘너 때문이야, 내가 한 거야...’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속뜻을 그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의인화된 아담은 사실은 태고교회를 말하며, 선악과 본문 전체는 사실은 태고교회의 전체 존속기간 중 있었던 일을 아름답게 그린 것입니다. 참고로, 태고교회는 대홍수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태고교회는 인류 최초의 교회로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교회였습니다. 홍수 이후 세대인 고대교회(노아교회), 표상교회(유대교회) 및 현기독교교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태고교회는 창세기 2장 시작 부분에 나오는 '안식일' 상태로 표현되는 교회였습니다.

창세기 1장이 사실은 사람의, 교회의 거듭남을 서술한 것이라면, 창세기 2장 안식일은 그 거듭남의 완성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가 바로 천적(天的) 천국 상태로서, 태고교회는 주님과, 그리고 천국 천사들과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던, 정말 놀라운, 지상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태고교회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보다는 자아를, 천국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점점 변해가는 전체 장구한 역사를 이 몇 줄 선악과 이야기로 요약한 것입니다.

참고로, 선악과를 범하기 직전은 태고교회의 세 번째 후손 이야기이고, 범한 이후는 네 번째 후손 이야기입니다. 태고교회는 일곱 번째 후손까지 이어지며 더욱더 가라앉다가 결

국 홍수라고 표현되고 있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1장까지는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어느 특정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를 점했던 신앙이나 교리, 교회를 말하며, 그래서 가령, 오늘 아담도 아담으로 시작하는 태고교회를, 가인은 그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로서 사랑과 신앙을 각각 따로 생각했던 교회, 그래서 결국 이단이 된 교회를, 아벨은 사랑과 신앙을 하나로 본 교회,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제사, 곧 예배가 열납될 수 있었던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sup>9</sup>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sup>10</sup>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태고교회에게 주셨던 특별한 능력인 퍼셉션(*perception*, 지각, 통찰, 깨달음)은 이들이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주님보다 자신을

‘네가 어디 있느냐’

더 향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 이 네 번째 후손까지는 조금, 약간은 남아있어서 이들은 ‘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악 가운데 있게 되었구나. 우리가 주님이 금하신 짓을 범했구나...’ 자각하며, 부끄러워 숨고, 변명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는 그 약간 남아있는 피셉션으로 말미암아 악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고 있음을 말하며, ‘벗었다’는 것은 주님이 선 조에게 주신 이노센스(*innocence*, 천진난만, 순진무구)를 상실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벌거벗음’ (*nakedness*)은 우리를 구분 짓는 참 놀라운 기준입니다. 우리들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하며, 우리의 자아는 악과 거짓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들이 볼 때, 지상의 사람들은 심지어 아가들까지도 까만 덩어리로 보인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므로 지상 사람들의 영을 보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자비로 거듭남이 시작되고, 주님 은혜로 그 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곧 주님의 신성인 선과 진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즉 우리의 속과 겉이 주님의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이노센스의 사람이 되어 벌거벗어봐야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되며 아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마치 첫 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첫 교회인 태고교회처럼, 그리고 천적 천국 천사들처럼 말이지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2:25)

이 상태가 선악과를 범하기 전 태고 교회의 상태이며, 천국 천사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범한 직후인 창세기 3장 7절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sup>7</sup>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sup>8</sup>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sup>9</sup>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sup>10</sup>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  
나이다 <sup>11</sup>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  
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  
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  
가 먹었느냐 <sup>12</sup>아담이 이르되 하나  
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sup>13</sup>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  
었나이다 (창3:7-13)

참 슬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태  
고교회의 네 번째 후손 때부터 시작  
된 이 탈선으로 교회는, 인류는 이  
제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  
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좀 측은한 말씀이지만, 그나마 이젠  
그래도 좀 나은 게 이제 다섯 번째  
후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등으로  
더 내려가면 이들은 아예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돌이킬 수 없는 상  
태로 떨어지고 말며, 그 결과는 대  
홍수로 표현된 종말이기 때문입니  
다.

참고로, 인류는 지금까지 세 번의  
종말, 세 번의 최후 심판이 있었습  
니다. 각 교회 시대의 체인지가 일  
어난 때마다 사실은 그 시대의 최후  
심판 및 종말, 그리고 새로운 일어

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  
번째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현 기  
독교회 역시 최후 심판 및 종말을  
고하고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 다섯  
번째인 주님의 영원한 교회가 시작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아담더러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아담은 주님과 인간, 주님과 사람  
사이 합리와 이성을 말합니다. 주님  
은 사람을 속 사람과 겉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마치 궁창을 지으시  
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로 나누신 것처럼 말이지요. 주님은  
사람을 영으로 지으시고 육이라는  
옷을 입히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  
계와 자연계에 동시에 있게 하셨습  
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속  
사람으로는 주님과, 겉 사람으로는  
자신의 자아와 연결되게 하였고, 그  
래서 사람은 속 사람을 통해서 주님  
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아 겉 사람  
에게 전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질서는 주님, 속 사람, 겉 사  
람, 자아 순입니다. 이 순서, 이 질  
서 속에서 아담은, 인간의 합리와  
이성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을 주님의  
질서를 따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이성의 순기능  
이요, 주님이 아담에게 바라셨던 역

‘네가 어디 있느냐’

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담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정 반대, 엉뚱한 역기능을 수행한 것입니다.

여자는 자아를, 인간의 고유본성을 말합니다. 처음 주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는 순기능, 곧 주님의 질서를 따르는 아름다운 자아, 본성이었다면, 이들 후손들의 자아는 역기능, 곧 주님의 질서를 거스르며, 역으로 곁에서 속으로, 땅에서 하늘로, 피조물에서 조물주로 향하려는 타락한 자아였고, 그래서 아담은 이때 마땅히 제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소리쳐 깨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 이미 그럴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아내가 준 선악과를 자기도 먹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지혜와 지성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담이라 부르는, 그러나 선조와 달리 타락한 이들 네 번째 후손은 더이상 천적, 영적 선은 없고, 단지 자연적 선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자연적 선은 그 안에

악이 들어있는 그런 선입니다.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천적인 것은 감람나무로, 영적인 것은 포도나무, 그리고 자연적인 것은 무화과나무로 각각 나타냅니다.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본문,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21:19)

여기 무화과나무는 심지어 자연적 선조차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선이란, 즉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이란, 그 가장 안쪽에 주님으로부터 온 천적 선이 있는 선을 말합니다. 어떤 선이 주님으로부터 온 선이 되려면 그 가장 안쪽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선 가장 안쪽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 선을 통해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며, 오직 주님만 드러나셔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자칫 탈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사랑은 선입

## ‘네가 어디 있느냐’

니다. 그러나 마이크 잡고 나라 사랑 외치다가 슬그머니 자기를 높이는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자연적 선, 가짜 선, 악한 선, 위험한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일단은 주님의 저 부르심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태고교회 네 번째 후손까지는 아직 퍼셉션이 조금 남아있었고, 그래서 저들은 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 퍼셉션은 배우지 않고도 주님의 선이요 진리인지를 직관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주님은 이 능력을 태고교회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우지 않고도 주님의 신성 가운데 이 지상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고 대단한 능력이요, 선물이나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퍼셉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후 세대는 주님이 퍼셉션 대신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류는 이 퍼셉션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며, 천국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이 퍼셉션이 회복되며, 주님으로 말미암은 천국의 빛이 흘러들어오며, 점점 더 생생해질 줄 믿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애매모호한 세상에서, 특히나 더욱 혼란, 곤란, 모든 것이 혼잡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 뜻으로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퍼셉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저 목소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마음 문 활짝 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다음 말씀의 뜻입니다.

<sup>22</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sup>23</sup>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sup>24</sup>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sup>25</sup>

창3:9-10, AC.226-228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sup>26</sup>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sup>27</sup>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6:22-27)

둘째, 선악과 범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올바른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범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것을 세상, 세속의 것으로 대신하려는 것, 뭘 어찌 해보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육체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입니다. 태고교회 선조들은 주님 주신 피땀으로 주님께 관한 진리와 계시들을 잘 정리 정돈, 후대에 전해주었습니다만, 후대는 그걸 순전하게 감사함으로 받는 대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배운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는 아닌데... 하면서 말이죠.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것이 대표적이지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방언과 통변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유명해지기 위해 부러워한다든지, 안수만 하면 병이 낫는 부흥사를 역시 유명해지기 위해 부러워한다든지 하는 목회자들의 경우입니

다. 이런 것이 여전히 선악과를 범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을 육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일체의 태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은 합리(*rational*)와 이성(*reason*), 이해(*understanding*)의 역할이요, 아내의 역할은 자아(*selfhood*), 본성(*own, proprium*), 의지(*will*)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질서, 순서 안에서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을 자기도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말하는 것을 자기도 따르고... 이것이 바로 ‘둘이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2:24)

아담은, 남자는, 남편은 늘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고, 주님 주시는 피땀으로 자신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다 하기! 이렇게 하여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 외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께 복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2-05-22(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